社說

생활속에 담긴 건전한 대학문화

— 지속적인 생활문화운동을 기대하며

최근 각 대학마다 새로운 실천운동의 하나로써 생활문화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은 대학사회에 만연한 외래문화를 배격하고 우리의 것을 찾자는 노력과 소비·향락문화를 배제하고 대학내의 건전한 문화풍토를 정착시키려는 것이 주된 의도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시이의 개인의식을 불식하고 공동체의식을 이루자는 의미도 이 생활문화운동이 가지는 큰 의의중에 하나다.

이 생활문화운동의 주내용은 우리의 옷입기, 음식먹기등의 민족자주성 회복을 위한것과 무분별한 라카페, 노래방 출입을 자제하자는 소비·향락문화 근절운동 더 나아가 소련기 재활용과 건전한 놀이문화전파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고 있다.

우리학교는 2학기 들어서부터 생활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캠퍼스에서는 소비문화, 학생의식, 생활속의 놀이문화등 세가지에 무게를 두어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학교주변 환경이 각종 라카페등의 소비업소와 직접 맞닿아 있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만하다.

수원캠퍼스의 경우에도 입거리·먹거리 찾기와 국산차마시기, 재활용품 수거등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캠퍼스가 주위환경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아직 생활문화운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듯이 보인다.

지속적인 홍보나 캠페인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이제는 단지 외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배척하거나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본교 서울캠퍼스 주변뿐 아니라 대다수 대학가 주변이 소비·향락적으로 문화환경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특히, 거의 반년사이에 우후죽순 늘어난 라카페, 노래방이 약이십여개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대학가의 소비문화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

물론, 그런 소비업소의 증가가 대학인 생활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없겠지만 한생들의 생활소비형태나 의식등이 그환경과 문화에 많이 노출된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치열한 입시,취직 경쟁속에서 대학도 사회분위기를 반영한듯 개인적인의 이기주의의 경향이 심화되는 이때, 공동체로서 함께사는 사회를 일깨워주는 '생활문화운동'은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학교도 산적된 교내·외 문제들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성원들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이 운동이 학생들의 생활속에 파고들기 위해서는 캠페인과 홍보뿐만아니라 건실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본지에서 벌이는 '생활문화 캠페인'과 같은 노력과 더불어 생활문화운동이 앞으로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생활속에서 실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를 바란다.

미국의 변화, 집요한 실리추구의 세계

— 클린턴 내각의 경제 정책을 전망하며

지난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행정부를 누르고 빌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었다. 클린턴이 선거인단을 370명을 확보한데 반해 부시는 고작 168명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

미국 선거에 세계 주요 나라는 관심을 기울였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찰'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는 것을 볼 때, 미국의 선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질서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의 뒤를 경제력으로 추격하고 있는 일본이나 EC국가들, 혹은 러시아·중국도 큰 관심을 가졌다.

미국의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가장 큰 변화는 경제문제이다. 미국내의 가장 큰 골치거리임을 실토한 것이다.

사실상 미국경제의 침체는 심각하다. 한해 재정적자가 3천억달러이고, 지난 20여년 사이 이렇게 쌓인 재정적자가 무려 4조억달러이다. 현재 미국내 실업율은 7.5%정도나 되며 미국기업들은 일본이나 독일에 추격당하다가 먹히고 있는 상태이다.

경제력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로, 미국 시민은 빌 클린턴을 선택했다. 일명 클린턴노믹스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클린턴 역시 그의 선거유세나 공식석상에서 경제문제를 부각시켰다. 또한 그의 1백일 정책계획에서도, 단기적 경기회복책을 최우선정책으로 계획하고, 장기적 재정축소계획을 펴 향후비 1천억달러 삭감이나 연방정부직원 10만명 감원이라는 적극적 정책을 구상중이다.

이런 경제우선정책은, 미국이 세계경제판도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파급효과는 크다.

투표 전부터, 일본은 클린턴의 보호주의적 무역압력 강화를 민감하게 우려하고 대응전술을 펴고 있으며, EC회원국들도 공정교역의 이름아래 행해질 공세적 보호주의를 두려워 하고 있다.

우려나 걱정은 나라 밖의 문제만이 아니라 얽혀진 나라 안의 문제이다. 대미의존도가, 외교나 안보, 무역과 경제분야에 모두 높은 우리나라 경우는 훨씬 심각하다.

지난 6일 국회예결의에서는 최각규경제기획원장관이 나와 '대외통상정책은 부시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체분석했으나, 미군주둔 분담금 확대 요구가 더욱 강력히 제기될 것이고, 클린턴의 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은 한국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다. 다시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로, 미국내 산업보호를 강화하고 보복관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 예로 환율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의 입박이나 앞으로 4년간 미국내 외국기업에 대해 4백50억달러를 과세하려는 정책의 입박이다.

또한 UR협상 역시 곤내 쌀시장 개방압력의 강화로 예상되어 더욱 더 어두워질 전망이다.

클린턴노믹스, 신흥실주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새 인주당 등은 클린턴을 둘러싸고 생긴 말들이다. 앞으로 우리경제가 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말들이기도 하다.

미국은 분명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한미관계에서도 보다 집요하게 실리를 찾아가려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들이 깊탐해야 할 질은 훨씬 더 무겁게 보인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은 몸져야 할 때이다.

오락·상업성에 물든 서울방송 1년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제일 먼저 TV를 떠올린다. 그만큼 대중매체로서 TV가 사람들의 생활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TV의 역사는 삼십년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국민의 절반 이상이 TV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TV수상기 판매량이 사백만대를 돌파한 1978년이었다. 따지고 보면 15년이란 세월 동안 놀라운 발전을 이룬셈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의 TV방송 발전에 미친 기여도는 상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올해로 창사 2주년을 맞고 있는 서울방송도 일익을 담당했다.

서울방송은 TV방송지역이 수도권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의 양대 방송체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활력소가 될 것이라 여상했기에 많은 기대를 보았었다.

하지만 개국 당시 오락성과 상업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심속에 출발한 서울방송은 그 걱정이 그대로 적중한 듯한 느낌이다.

요즘 TV3사가 방송법상 보도 10%, 교양 40%, 오락 20%로 편성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보도 10%외에 대부분을 오락성 방송에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의 신문보도를 통해 여러번 지적된 바 있다.

TV3사의 대표적 오락프로그램인 문화방송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몰래카메라'와, 한국방송공사 2TV '웃음한마당'의 '전들이 원한다면', 서울방송 '꾸러기 대왕전'의 '꾸러기카메라'는 시청자들에게 가학적인 행태를 보여줌으로서 즐거움을 준다는 비판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지만, 시청률 상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드라마에서도 문제점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문화방송의 '창밖에는 태양이 빛났다', 한국방송공사의 '날씬의 여자', 서울방송의 '물위를 걷는 여자', '비련초'등의 드라마가 거의 유부남의 외도, 미혼녀의 임신중절수술 등 '불륜' 일색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대인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도덕성에 위배된 '허구'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송 내용의 문제점은 TV3사에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서울방송의 경우 전체적인 내용이 소비·향락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프로그램을 그대로 따온 '꾸러기 대왕전'과 즉흥적인 데이트 신청과정과 짝 짓기를 소재로한 '사랑만들기' 등은 시청자들에게 유치하고 노골적이라는 느낌을 심어 줄 정도여서 어느 정도의 순화 또는 여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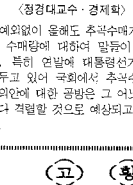
서울방송이 TV방송을 시작한지 불과 1년 여. 지금까지의 활동으로 시청자를 확보한 양대 방송사와 경쟁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편법을 동원했다면, 앞으로 진정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TV방송국 개국 1주년을 맞이한 서울방송이 보다 성숙되고 체계적인 방송편성과 보도로 시청자들과 만나길 기대해 본다.

〈김일형 記者〉

추곡은 풍년, 수매가는 흉년

— 정부의 추곡수매안 확정에 부쳐



이 정 용
〈정경대교수·경제학〉

예외없이 올해도 추곡수매가격과 수매량에 대한여 말들이 많다. 특히 연말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에서 추곡수매동의안에 대한 공방은 그 어느해보다 격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10월20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추곡수매가격을 작년보다 5% 인상하고 수매량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8백50만섬으로 확정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이와같은 정부의 올해 추곡수매안은 수매가의 경우 지난해 7%인상에 비해 2% 낮은 수준이다. 또한 10월 16일 양곡유통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한 수매가격 7~9% 인상과 수매량 8백50만~9백50만섬에 비하면, 수매가격에 있어서는 건의안의 하한보다 2% 낮은 수준이며 수매량은 거의 아이의 하한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고 양곡유통 위원서 정부미 방출가격을 지난보다 10~15% 인상 할 것을 건의 했지만 채택되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넘겨지고 말았다. 그리고 각정당과 단체의 주장을 보면 민자당이 8%인상에 1천만섬수매를 민주·국민당은 전농 등 6단체와 함께 15%인상에 1천1백만섬수매를 주장하고 있으며, 각 신문 사설에서도 추곡가 5%인상은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는 모두들 정부의 추곡수매안에 비하여 높은 가격 인상과 많은 수매량을 요구하는 피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인상률에 따르면 올해 추곡수매가격은 1등미가 80kg가마당 지난해의 11만9천2백10원에서 12만5천1백70원으로 5천9백60원 인상되고, 2등미는 11만3천8백40원에서 11만9천5백30원으로 5천6백90원 인상된다. 금액으로 볼때 만만치 않은 수준이며,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일본의 쌀값에 근접해 가고 있어 소비자의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사람의 한끼 식사에서 쌀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한 통감과 비슷한 실정이니 생각보다 큰 부담은 아닌 셈이다.

여기서 높은 수매가 인상을 주장하는 농민대표들의 설명을 보면 지난 3년간의 농촌노임, 농기계 이용료, 농약값, 비료값등의 인상률을 고려할 때 내년도 농가구입가격지수, 즉 농가지출이 금년보다 22.3%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어 올해 수매가는 최소한 13%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으므로 소득보상적 차원에서도 수매가는 더욱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측의 설명을 보면, 올해는 산간의 비탈논들에 벼가 신이지지 않아 수확단수가 늘어난 데다 농지임차료가 낮아졌고 비료와 농약사용량이 줄어 미곡의 한계생산비는 작년보다 오히려 3.2% 줄어들었으므로 5%인상만으로도 소득보장률이 8.2%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소득보장률은 지난 3년간의 평균 3.6%에 비하면 갑절이상 높은 수준이고, 더구나 올해는 소비자물가도 안정되어 농가에 대한 소득보상효과는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양측의 주장을 볼때 각자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인상률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현행 추곡수매제도는 해마다 막대한 양록적자를 부담하면서 농업 및 농업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문제가 대두 되고 있으며, 또한 올해 양록누적적자는 총6조8천97억원까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부담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각 정당에서 주장하는 높은 수매가와 3%이내 물가안정 정책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지, 어떻게 조화시킬지 궁금하다.

세째, 종합적인 농민소득증대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즉 작년 양곡관리에 따른 자금부담이 1조5백60억원에 달했지만 농민에게 돌아간 실질소득지지효과는 3천6백27억원으로 34%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으로 농민소득증대와 연결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네째, 민간유통기능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즉 매년 쌀생산량중 수매량은 20%정도이고 시장출하량은 60%에 이르고 있는데, 수매가와 시장가격의 차이가 80kg가마당 2만~3만원에 이르고 있어 정부미 방출에 따른 가격격차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값싼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면 가격격차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따라서 이중곡가제의 유통체제 정비와 계절적, 품종별 가격차별화로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가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여 낮은 가격으로 방출하는 현재의 추곡수매제도는 쌀 공급이 부족했던 88년이전 까지는 그런대로 생산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시켜 왔으나, 그후 생산량과잉시대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제도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개선방향은 농업생산성 증대, 유통정비, 농가소득보장등을 위한 제반 시책들과 연계시켜 종합적으로 접근하면서, 특히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5% 인상방침, 생산비에도 못미쳐

농가소득보장 등 종합적시책 마련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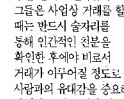
"이심전심"

세계로 꿈을 펴는 젊음

광활한 대륙 러시아에서 피부로 겪은 현지 경험들— 지금 원대한 포부를 실현해가고 있는 나의 큰 자산입니다.

박 대홍 : 87년 12월 입사
91년 1월 러시아 지역 전문가로 파견되어 1년동안 그들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생활관습을 배우고 돌아왔다. 지금은 삼성물산 북방인력실 러시아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독신파견 지역전문가제도



91년 1월, 모스크바에 위치해 있는 셰르메치에보 공항에 내린은 나의 첫발에는 1년간의 자유로운 현지화 경험이 약속되어 있었다.

시베리아만을 왕복 횡단해도 지구의 반바퀴 거리라는 광활한 대륙 러시아 — 지금은 개혁과 개방의 물결속에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우리와는 국교가 단절되었던 사회주의 국가였다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은 모든것이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장내한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숨쉬고 있었고 나라 전체가 정형화된 틀이 채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된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되라고 했던가. 나는 모스크바 대학의 정규 랭귀지 코스외에도 시장이나 거리에서 살아있는 그들의 언어를 접하면서 상관습을 익혀 나갔다. 식당에서 함석하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들의 의식과 정신을 들여다 보기도 했다. 단지 이 나라를 배우겠다는 생각보다는 철저하게 현지인화 되겠다는 것이 나의 각오였다.

리시아사람이라면 어머니처럼 느끼고 있는 모스크바와 북쪽의 베니스라고 불리우는 레닌그라드에 솟아 있는 웅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보면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그들의 수준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민족성 탓인지 보드카 잔을 치켜들고 건배를 외칠 때에도 그들의 입에선 예술적인 표현이 어렵지않게 흘러 나오곤 했다.

술을 즐기는 만족답게 그들은 사업상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술자리를 통해 인간적인 친분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서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사람과의 유대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사업상 거래에 있어 치밀한 계획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임 수 있는 그들의 사고방식 내지는 민족성을 1년동안의 현지화 과정 속에서 피부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는 큰 수확이었다.

1년간의 기간을 마치고 떠나올 때에 끝없이 펼쳐진 시베리아의 설원위에 그려 놓고 온 나의 원대한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수화기를 든다.

삼성이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키우고 기술의 국제화, 제품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사람의 국제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신파견지역 전문가제도 — 업무없이 자유롭게 현지경험과 지식만을 쌓아 자연스럽게 해당지역의 전문가가 되는 이 제도에는 매년 400명씩의 3년차 신입사원이 선발되어 독신파견되고 있으며 3년후에는 약 2,000명의 지역전문가가 양성됩니다.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